

현존 最古 낭만 발레 '라 실피드' 22년만에 국내 무대 ... 광주시립발레단 내달 5~7일 광주문화예회관

“요정 발레 ‘라 실피드’ 초연 설레 현대적 감각으로 사랑·이별 표현”

안무·연출 맡은 러시아 볼쇼이발레단 안드레이 볼로틴·배주윤씨 부부 의상·음악까지 직접 챙겨...무대·지휘 등 ‘모스크바 사단’ 총출동

현존 작품 중 가장 오래된 낭만 발레작으로 꼽히는 ‘라 실피드’ (La Sylphide-1832)는 ‘백조의 호수’, ‘지젤’과 함께 3대 ‘발레 불망’ (백색 발레)로 불린다.

광주시립발레단이 오는 4월5~7일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발레 ‘라 실피드’ 전막 (2막) 공연을 한다.

한국에서는 22년 만에 펼쳐지는 전막 공연으로,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안드레이 볼로틴 (41)과 배주윤 (42)씨 부부가 안무와 연출을 맡았다.

27일 오후 ‘라 실피드’ 제작 발표회에서 만난 부부는 자신들의 첫 번째 안무작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15세에 모스크바로 유학간 뒤 19세이던 1996년 볼쇼이 발레단에 한국인 최초로 입단한 배주윤씨는 지난해부터 발레단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제 스승인 최태지 시립발레단 예술감독과 저희 부부의 오랜 바람이었던 ‘라 실피드’를 광주 무대에 올리게 돼 꿈만 같아요. 볼쇼이 동료들에게도 부지런히 자랑하며 홍보하고 있어요.”

볼쇼이 극장에서 15년 동안 ‘라 실피드’ 주역을 맡아온 볼로틴에게 이번 작업은 더욱 특별하다. 볼로틴의 부모도 볼쇼이를 거친 ‘발레 명문가’로 그는 현재 볼쇼이 발레단에서 수석 무용수이자 안무가로 활약하고 있다. 볼쇼이에서 활동하며 결혼 13년차를 맞은 이들 부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안무가로서도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다.

“지난 1월 광주를 찾아 점검해보니 챙겨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와 내내는 각자 남녀 안무를 나눠 담당했습니다. 발레단 대연습실에서서는 전체적인 안무 구성을 짜고 소연습실에서는 주인공들을 위한 개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안무가가 동시에 협업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안무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요정 발레의 표본’인 이 작품의 배경은 스코틀랜드다. 청년 농부 제임스는 에피와 약혼했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공기의 요정 실피드를 잊지 못한다. 제임스는 실피드를 쫓아 숲에 들어가지만 마녀의 꾀에 빠져 실피드를 날지 못하게 만들면서 위기가 찾아온다.

부부는 오귀스트 부르농빌의 원안무를 보존하면서 현대적 감각으로 사랑과 이별, 삶과 죽음에 대한 섬세한 감정 변화를 표현하는데 공을 들였다.

“1832년 파리 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발골로 서는 기법을 구사하면서 발레예술



광주시립발레단 ‘라 실피드’가 오는 4월5~7일 광주문화예회관에서 펼쳐진다. 왼쪽은 재안무와 연출을 맡은 배주윤·안드레이 볼로틴 부부.



광주시립발레단 ‘라 실피드’가 오는 4월5~7일 광주문화예회관에서 펼쳐진다. 왼쪽은 재안무와 연출을 맡은 배주윤·안드레이 볼로틴 부부.

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다소 아가자기한 편이었던 낭만 발레에 기교적 요소를 보강해 볼거리를 더했어. 요정이 숲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특수장치를 도입하고 25명의 발레리나가 동시에 두 바퀴를 도는 동작 등 관객이 흥미를 느낄 장면이 많습니다. 빠른 박자 속에서 작고 섬세한 기교를 부려야 해서 무용수들이 다칠 위험까지 있어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배주윤)

배씨는 안무 뿐만 아니라 의상부터 무대·음악까지 모든 분야를 챙길 정도로 욕심을 냈다. “지난 26일 한국에 들어오면서 무용수의 의상 견본을 직접 만들어 챙겨왔어요. ‘라 실피드’가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작품인 데다 광주에서는 초연이라 고증을 통해 약보를 보완하고 오케스트라 연주에 대해 꾸준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라 실피드’에는 볼로틴·배주윤 부부를 필두로 내세운 ‘모스크바 사단’이 총출동한다. 볼쇼이

극장 제1바이올리니스트를 지내고 모스크바 UMB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고 있는 로만 데니스오브가 지휘봉을 잡고 무대 디자이너 다리아 바실리에바(모스크바 연극스튜디오), 의상 디자이너 야코브레바 예카제리나(모스크바 클래식 발레극장)가 참여한다.

강은혜·우건희 (5-6일 오후 7시 30분), 구윤지·이기행 (6일 오후 2시 30분), 김민영·이기행 (7일 오후 2시 30분)이 실피드와 제임스를 맡아 애절한 사랑 연기를 보여준다. 지난해 ‘백조의 호수’ 에 이어 광주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펼친다. 시립발레단은 오는 6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대한민국발레축제에 참여해 40분으로 축약된 작품을 선보인다.

만 7세 이상 관람가. R석 3만원·S석 2만원·A석 1만원 (학생 50% 할인). 예매 1588-7890 (티켓링크).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설화(說話)의 풍경’ 광주시립사진전시관 오상조전...5월 26일까지



‘설화(說話)의 풍경’

민족 정서의 뿌리를 찾아

‘운주사’·‘남도 사람들’ 등 역사·문화 풍경 사진에 담아 29일 작가와의 대화



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사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80년대, 전주대 박물관 요청으로 2년간 전북 지역 문화재를 촬영한 그는 당시 작업을 계기로 문화재 기록사진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광주시립사진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오상조 (67) 작가 초대전 (5월 26일까지)은 그의 40년 사진 인생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시다. 민족 정서의 뿌리를 찾기 위해 역사와 문화가 있는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해온 그는 광주대 사진학과 창설의 산파 역할을 하는 등 사진 교육에도 힘을 쏟아왔다.

‘설화(說話)의 풍경’을 주제로 진행중인 이번 전시는 오상조 작업의 중요한 주제로 대별되는 ‘운주사’, ‘당산나무’, ‘남도 사람들’ 시리즈의 대표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각 시리즈는 사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촬영한 작품들로 한 장 한 장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 특히 ‘남도 사람들’ 시리즈는 사진점으로 출판됐지만 전시장에서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작가는 1981년 ‘오상조 사진연구소 개관기념전’을 시작으로 전시와 사진집 출간

기록사진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1984년, 광주대학교에 부임하며 남도지역을 가까이서 만나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한 그는 유·무형 문화유산의 연원은 삶의 문제이고, 사람을 살리는 땅과 직결되고 있음을 깨달으며 전통문화의 기록 작업에도 힘을 쏟았다. 광주·전남 최초의 사진 관련 학과인 광주대학교 사진학과 창설(1994)을 주도한 그는 ‘기록 작업’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1997년부터 광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학생들과 지역별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고 사진 집으로 출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진의 가장 큰 본질은 기록성이라고 말하는 오 작가는 “사람들이 촬영할 당시는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도 훗날에는 그 시대상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역사성을 갖게 된다”며 “그 역사성이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예측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진의 힘”이라고 말한다.

이번 오는 29일 오후 3시에는 전시관에서 ‘작가와의 대화’가 열린다.

오 작가는 이번 행사에서 사진을 전공하게 된 계기, 운주사와 당산나무에 얽힌 역사, 70년대의 생활상 등 시대의 기록자로서 수행해 온 이야기들을 풀어 나간다. 또 오 작가의 제자로 그의 대표작 시리즈에 대한 평론을 꾸준히 이어온 독립큐레이터 최연하씨가 패널로 참석해 그의 작업의 사진사적 의미를 살피고 대화를 이끈다. 문의 062-613-5405. /김미은 기자 mekim@



‘청학동’



‘새로운 소리를 듣다’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년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인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연회비

구분	연회비(VAT포함)	비고
개인(1년)	₩ 2,800,000	본인 1인
증정품		· 객실 무료이용권 2매 · 레스토랑 이용권 1매 · 휘트니스 이용권 4매

